

“여름, 산사로 가자...청소년 프로그램 다채”

‘청소년 마음등불’ 명상캠프 여름 생태학교 눈길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캠프와 생태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마음등불’ 불교명상캠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이 진행하는 명상캠프는 그 대안으로 지역사회에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백양사에서 진행된 숲환경캠프에서 해설자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

백양사, 8월 2~4일 캠프
금산사, 8월 12~14일 여름학교
불교환경, 여름생태학교 진행

명상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명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는 매일 4주 토·일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치료를 3급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심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통화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는 8월 2~4일 지리산 화엄사에서 ‘지리산 숲속 친구들이 안녕!’이란 주제로 제12회 어린이여름생태학교를 개최한다.

환경부, 광주광역시 후원하고 청소년공공체 나무숲에서 주관하는 이번 생태학교에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행사에는 화염사 알기, 지리산 숲길걷기,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체험, 예불(108배 절명사), 공동체놀이, 기후변화 알기, 부모은중경 독송, 만들기(향주머니, 머리띠), 노래와 율동, 계곡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답게 숲길걷기, 체험, 기후변화 알기, 자연식 먹거리 제공 등 다

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임수연 사무처장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특히 생태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태학교에는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게임기와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탄산음료·과자 등을 대신해 떡·과일·옥수수 등 건강한 먹거리를 간식으로 제공한다. 참가한 아이들은 전원 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또한 8월 12~14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여름불교학교는 맨발걷기 명상, 별자리 탐험, 색모래 만다라, 한글 주련쓰기 등의 색다른 체험활동과 스님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부모은중경 사경과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놀이와 체험이 함께 접목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은 7월 28~29일 진안 마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했으며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도 26~29일까지 ‘어린이 여름불교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학생들은 전통문화유산, 생명평화 먹거리, 생명평화대화반, 대제에너지반, 평화통일반등의 분반활동을 통해 먹거리와 생명평화의 관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쌓고 진정한 생명평화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남곡당 윤명대선사 30주기 추모제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7월 25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0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추모제에는 남곡 스님의 문신 재근, 재석, 재정, 재진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100여 대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곡문도를 대표해 재근 스님은 추모제에 참석한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곡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초대 선운사 주지를 맡아 선운사와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남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한편, 선운사는 25일 지장보궁에서 35차 교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종단의 현안과 관련해 총림 설치와 교구별 원로위원추천에 대해 토의했다. 또 교구 현안과 관련해 고창군 뉴타운 불사 진행보고, 승려노후수행마을 추진현황, 고창북지관 운영현황, 불학승가대학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선운사 녹차밭 관리와 내장사 대웅전 복원 진행에 대해 토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문화연구원, 전주 연꽃문화제 개최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시민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주 연꽃문화제가 7월 20~2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원행, 금산사 주지)가 주최하고 전북삼승가회가 후원한 연꽃문화제는 연 향기 가득한 특설무대에서의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꽃문화제에서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불교 O X 퀴즈, 즉석노래자랑 에버그린 오케스트라 공연, 퓨전국악 난타공연과 가수 남궁옥분의 공연이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전북무형문화제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은 용왕제를 봉행하며 전북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 각 체험부스에서는 투호, 굴림쇠 돌리기 등의 민속놀이 한마당과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사경, 풍선아트, 염주만들기, 소원지 작성 등의 불교문화와 다양한 우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금산사 부주지 성



우 스님 등 전북삼승가회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원주 전북도지장, 최진호 도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이상직 민주당국회의원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연꽃문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전북삼승가회 회장 원행 스님은 “연꽃은 항상 청정하여 중도를 지킨다는 꽃중의 군자다”며 “전북도민들과 국민 모두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우시고 상생과 화합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꽃문화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둘째날에는 특설무대에서 연꽃가요제와 버블메이킹쇼, 무형문화제 범우스님의 특별공연과 벨리댄스공연등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취임

“서용 큰스님께서 주창하신 참사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7월 22일 김광태 신도회장(한진레미콘 대표이사, 53·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백양사 신도대중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도량이었던 백양사의 가풍을 이어가 많은 대중들이 수행할 수 있는 중심사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다짐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취임한 김 신도회장은 “우리의 지혜와 원력을 하나로 모아 10년 후의 백양사, 100년 후의 백양사의 미래상을 그려놓고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신도회장은 “백양사 신도회가 지혜와 광명,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을 높이 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나가는데



열을 통해 수행도량의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에서 적극적인 마음을 모아 불법을 실천하는 백양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고교와 제주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대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KBC광주방송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며 국제로타리 3710지구 차기총재(2014~2015)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강연 높은 호응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7월 22일 증심사 취백루에서 강남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강사로 명사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화 스님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신앙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했다.

봉은사 주지 이후 첫 외부강연을 한 진화 스님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야 그동안 말버둥 쳤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며 “진정한 자신의 것이란, 평생에 했던 공부와 남에게 배웠던 살아온 삶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수처작주(隨處作主)가 곧 그대로 임체개진(立處皆眞)이라는 말처럼, 어느 곳에서도 주인으로 살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삶을 주체적·창의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화 스님, 연광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장, 강기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증심사는 진화 스님 강연에 이어 8월 30일 진우 스님(구미 대운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방승인 김해옥 씨, 11월 각목 스님(조기불전 연구원) 등이 강사로 참여해 법회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 도서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친화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승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